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당파 정체성과 당파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의 미시적 기반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우 현

당파 정체성과 당파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의 미시적 기반

지도교수 박 원 호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우 현

김우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강 원 택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박 원 호 _____ (인)

위 원 _____ 하 상 응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당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양대 정당 간 적대감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서적 양극화 현상에 있어 각 당파 집단 수준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적했으나,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주관적인 정당 양극화 인식에 주목하여, 현재 그 양상과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정당 지지자들은 당파 집단 간 차이를 실제보다 더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왜곡은 주로 반대 정당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했다. 그리고 정당 양극화 인식은 지지자들이 지지정당은 더 긍정적으로, 반대정당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각각 영향을 미쳐 극화된 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 정당 지지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특성 평가에서만 양극화 인식의 제한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은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한국 유권자들의 당파적 양극화 인식과 실제 현상 간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양극화 인식이

당파적 편향에 의해 비대칭적으로 과장되었음을 보임으로써 당파적 양극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또한 개인의 양극화 인식이 정당과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주관적 양극화 인식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서적 양극화, 당파적 양극화, 양극화 인식, 당파적 편향, 당파 정체성
학 번 : 2020-21175

목 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배경 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가설 4

제1절. 정치적 양극화 4

제2절. 당파적 양극화 인식 7

제3절. 당파적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 11

제3장. 연구 설계 14

제1절. 데이터 및 변수 측정 14

제2절. 분석 방법 19

제4장. 분석 결과 21

제1절.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양극화 양상 21

제2절. 당파성에 따른 정당 위치와 양극화 인식 29

제3절. 정당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 36

제5장. 결론 45

참고 문헌 47

부록 57

Abstract 63

표 목 차

[표 1] 변수 요약 통계량 18
[표 2] 지지 정당에 따른 양대 정당 호오도 평균 23
[표 3] 지지 정당에 따른 사회적 거리 24
[표 4] 지지 정당에 따른 특성 평가 25
[표 5] 양대 정당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균 30
[표 6] 개인 수준에서 주요 설명 변수 간 상관관계 32
[표 7] 정당 양극화 인식 결정 요인 33
[표 8] 정당 극단성 인식 결정 요인 35
[표 9] 정당 호오도 결정 요인 36
[표 10] 사회적 거리와 특성 평가의 결정 요인 39
[표 11] 정당 극단성 인식과 정당 호오도의 상관관계 40
[표 12] 당파성에 따른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 42
[표 13] 정당 호오도 선형 결합 검정 44

그 림 목 차

[그림 1] 양대 정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 2012-2022 . 21
[그림 2] 실제 이념적 양극화와 양극화 인식, 2012-2022 22
[그림 3] 양대 정당 지지자의 이념 및 쟁점 위치 26
[그림 4] 지지정당 별 태도 극단성 분포 27
[그림 5] 지지정당 별 당파 정체성 분포 27
[그림 6] 당파성에 따른 정당 위치 인식 29
[그림 7] 지지 정당 호오도와 반대 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영향38
[그림 8] 지지 정당 별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 43

제1장. 연구 목적 및 배경

현재 한국의 당파적 갈등은 양대 정당을 주축으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강하게 표출되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간 간극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 또한 최근 활발하다. 정치적 양극화 논의는 그 주체에 따라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차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 선호와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 기존의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 논의는 주로 전체 유권자 집단의 이념 분포에 있어서 중도적 유권자가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파 집단 수준에서 정당 간 이념 및 쟁점 입장 차이가 증가했는지 분석하였다(이내영, 2011; 정동준, 2018). 이 연구들은 전체 유권자 수준의 분포에서 이념적 양극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급격히 양극화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정당 지지자들은 지지 정당에 따라 정책 선호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자, 정치인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길정아, 하상응, 2019; 김기동, 이재묵, 2021; 장승진, 2021).

대중은 이러한 정당 간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국의 유권자들은 정당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20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집단 간 갈등 중 양대 정당 간 갈등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정한울, 2020). 또한 양당의 지지자들은 서로를 '적폐', '종북 좌파'라 호명하며 매우 적대적으로 인식하며 갈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편에 대한 반감을 중심으로 한 정파적 동원을 통해 지지를 얻고 있다. 지역, 이념 균열에 더해 최근 젠더 갈등까지 배제적 동원은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두 당파 집단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양당 지지자들은 대중이 인식하는 것만큼 매우 다른 집단인가? 본 연구는 정당 간 이념적 간극이 커진 것이 사실일지라도, 대중은 이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이 정서적 양극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당과 지지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주관적인 정당 양극화 인식에 주목한다. 정당 양극화 인식은 실제

양극화 현상과 구분되는데, 개인이 인식하는 양극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본인이 극단적인 이념적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정당 양극화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정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양극화는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당 지지자들이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당 엘리트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정당을 대표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의 극단적인 입장이 정당의 입장으로 인식되고 반대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 이념적 차이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일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강우창 외, 2020; 강원택, 2012). 또한 정파 언론과 선택적 노출 등 반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정보 환경의 편향성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은 분명 현실의 정당 간 차이를 반영하긴 하지만, 여러 요인들의 개입으로 실제보다 더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실제가 아니지만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즉 왜곡된 인식 때문에 정당에 대한 태도가 극화되어 당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념적 양극화가 정서적 양극화에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 연구들의 흐름과 일치한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양극화 인식이 정치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연구들이 정당 간 이념적 차이 인식과 정치 참여 간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가상준, 2020; 이재묵, 2014). 그러나 한국 유권자 사이의 당파적 양극화의 인식과 실제 양상,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양극화 수준을 실제 양극화 수준과 함께 비교하여 한국 맥락에서 당파적 양극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당파적 양극화 인식이 정치적 태도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주관적인 양극화 인식의 양상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성을 가진다. 주관적 인식은 실제로 나타나는

양극화 수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외부적 요인들이 주관적 인식에 작용하여 정치적 선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마치 좁힐 수 없는 차이처럼 느껴지는 정당 간 간극이 과장된 것이라면, 이러한 착각이 정치적 타협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반대로 정당 간 차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을 때 정서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Druckman et al., 2022). 실제로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 지지자들은 소수이며 다수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깨달을 때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은 줄어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수집된 패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양극화 인식이 정당에 대한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한국 유권자들이 양당 간 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당과 본인의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가를 통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당 양극화와 실제 양극화 수준을 비교해보고, 현재 당파적 양극화가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개인 수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당 양극화 인식에 당파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후 본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인 양극화 인식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당 호오도, 정당 지지자 사회적 거리, 특성 평가라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중이 떠올리는 정당의 양극화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당에 대한 극화된 태도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가설

제1절. 정치적 양극화

극심한 정파적 분열과 대립은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양극화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정당 혹은 이념에 따른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그 주체에 따라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차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념 및 정책 선호와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중이 당파적 입장에 따라 분열되는 유권자 수준의 이념적·정서적 태도 양극화를 대상으로 한다.

초기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집합적 수준의 분포에서 정당 엘리트와 대중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었는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당 엘리트의 경우, 소속 정당에 따라 더 진보적으로 혹은 더 보수적으로 이념과 정책 입장의 극단성 강화로 중도층이 줄어드는 이념적 양극화가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중도층이 감소하는 이념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Abramowitz & Saunders, 2008; Fiorina & Abrams, 2008; Layman & Carsey, 2002).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국회 의원들의 이념과 정책 선호는 극화되었으나, 전체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 상에서 중도가 줄어드는 이념적 양극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강우창 외, 2020; 강원택, 2012; 이내영, 2011; 정동준, 2018).

한편, 정당과 그 지지자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없지만, 반대당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Abramowitz & Webster, 2016; Iyengar et al., 2012; Iyengar & Westwood, 2015). 극단적인 당파 간 대립은 감정적 차원에서 정당 선호의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정서적 양극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 기반의

양극화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념적 극단성이 강화되지 않아도 당파 집단 간 적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도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정당에 대한 호감과 반대정당에 대한 반감이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가상준, 2020; 장승진, 서정규, 2019; 장승진, 장한일, 2020; 정동준, 2018).

이와 같이 정당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극화된 태도는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우려할 만하다. 극화된 태도는 민주적 규범의 지지가 당파성에 따라 좌우되게 한다(Kingzette et al., 2021). 또한 반대 정당 집권 시 정부 신뢰를 약화시켜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일지라도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힘들고 타협을 더욱 어렵게 한다(Hetherington & Rudolph, 2015). 뿐만 아니라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보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를 꺼리는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차별적 태도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김기동, 이재묵, 2021; 장승진, 장한일, 2020). 정서적 태도가 극도로 극화된 경우, 반대 정당의 지지자들을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간보다 못하다고 보는 비인간화까지 나타날 수 있다(Martherus et al., 2021).

그렇다면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연구들은 정당 일체감은 사회 정체성의 일종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한다(Huddy, 2001).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 정체성이 자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다. 이 때문에 정체성에 따른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집단 간 편향을 촉발한다(Tajfel & Turner, 1979). 이러한 집단 간 편향은 내집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인 정체성의 결과로서 기본적으로 지지 정당을 편애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Brewer, 1999; Lelkes & Westwood, 2017). 하지만 당파 집단은 정치 권력을 두고 경쟁과 상호 위협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파 정체성과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는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와 같은 지지정당과 반대정당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당파 집단 간 나타나는 정서적 양극화의 기초이며, 이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 간 차이를 크게 인식하거나 강한 당파 정체성을 가질 때 정당에 대한 태도가 극화될 수 있다(Huddy et al., 2015;

Mason, 2015).

사회 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정서적 양극화 원인 중 하나로 두 당파 집단 내의 동질성과 집단 간 이질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Levendusky, 2009; Mason, 2015). 국내에서도 최근 당파 집단 내 이념과 쟁점 입장에 대한 태도는 더 유사해지고, 당파 집단 간 차이는 커졌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정동준, 2018). 현재 한국의 당파적 갈등은 당파성에 따라 정당의 입장에 동조하여 사안을 해석하고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길정아, 하상응, 2019; 장승진, 2021). 이러한 당파적 양극화는 개인 수준에서 이념과 여러 쟁점에 걸쳐 더 강하고 일관적인 선호로 나타난다(길정아, 2019; 장승진, 서정규, 2019). 쟁점 선호의 극단성과 일관성이 강할수록 두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그 결과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과 반대 정당에 대한 반감의 간극 또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장승진, 서정규, 2019).

이러한 발견은 개인의 정당에 대한 태도 극화에 있어 각 당파 집단 수준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실제 개인의 쟁점 선호와 당파성 간 상관성이 강화되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그 메커니즘인 주관적인 정당 간 이념적 차이 인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객관적인 현실 자체보다 자신이 인식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한다. 실제로 당파 간 이념 및 쟁점 선호의 차이가 커졌더라도, 유권자들이 이를 더 과장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가 증폭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당파적 양극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파 집단 간 차이 인식의 양상과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도는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해줄 것이다.

제2절. 당파적 양극화 인식

정치적 양극화의 인식과 실제에 대한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두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다(Ahler, 2014; Levendusky & Malhotra, 2016a; Westfall et al., 2015). 양극화 현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당파 집단에 대한 추론 과정에서 인지적 편향으로 인한 오류로 발생한다. 인지적 편향이란 현실을 체계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게 하는 과정 혹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Haselton et al., 2015). 먼저, 사람들은 세상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대상을 범주화하여 그 특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Allport, 1954). 이러한 범주적 사고는 집단 내 특성은 더 동질적이고 집단 간 특성은 더 이질적이라고 인식하게 한다(Fernbach & Van Boven, 2022). 이 때문에 대중은 정당 간 차이를 과대 평가하고 정당 지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Ahler & Sood, 2018; Chambers et al., 2006; J. E. Rothschild et al., 2019).

대중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미디어 환경 또한 왜곡된 추론에 기여한다. 언론에서는 정당 간 협력보다는 대립적 상황이 주로 보도되며, 정당 엘리트와 정치적 참여가 활발한 강성 지지층이 주로 등장한다. 그런데 엘리트와 강성 지지층은 이념적 극단성이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디어가 이념적 극단성과 정당 간 갈등을 부각하게 된다. 게다가 당파적 미디어는 반대 정당의 극단적인 견해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과장하여 제시하고 공격하곤 한다(Yang et al., 2016). 한편, 대중들은 정당과 그 지지층의 입장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휴리스틱에 의존한다(Kahneman et al., 1982). 그 중 가용성 휴리스틱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처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추론에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더 자주 노출되는 당파적 갈등과 각 정당의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게 된다(Druckman et al., 2022).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은 집단의 핵심적인 특성을 반영한 집단 원형으로 대표되는데, 집단의 전형적인 구성원 혹은 고정관념으로도 볼 수 있다(Tajfel & Turner, 1979; Turner et al., 1987). 이러한 고정관념을 추론에 사용하는 것이 대표성 휴리스틱인데, 정당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각 당파 집단의 원형의 역할을 한다(Huddy & Yair, 2021). 따라서 사람들은 이들이 소수일지라도 전체 당파 집단의 속성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그 결과, 대중은 각 당파 집단의 이념적 위치를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추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사회적 인식 연구들은 소박한 실재론(naïve realism)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관점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다고 믿는 반면 타인들, 특히 자신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사익 추구와 편향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Pronin et al., 2002; Schwalbe et al., 2020). 그 결과 반대 정당의 견해를 실제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인식하고 두 정당 간 차이를 과장한다는 것이다. 반대 정당보다는 덜할지라도, 자신이 남들보다 더 객관적이라는 믿음은 지지 정당의 다른 지지자들의 극단성 또한 과대 추정하게 할 수 있다. 무당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자신과 달리 정당 지지자들은 비이성적이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Robinson et al., 1995). 따라서 무당파 역시 각 당파 집단의 극단성과 이념적 차이를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들은 현실과 사람들의 인식 간 괴리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당파 정체성은 정당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기화된 사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정확성 동기와 방향성 동기가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unda, 1990; Lodge & Taber, 2013). 정확성 동기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로, 고정관념과 휴리스틱에 덜 의존하여 신중히 판단하게 한다. 반면 방향성 동기는 특정한 결론에 다다르고자 하는 동기로, 이러한 결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믿음을 형성하도록 한다(Kunda, 1990). 방향성에 기반한 동기화된 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부합하는 논리를 더 설득력 있다고 평가하는 이전 태도 효과, 기존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선택적으로 찾는 확증 편향, 기존의 믿음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에는 반박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는 비확증 편향이 있다(Lodge & Taber, 2013).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기존의 정당 선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대상을 인식하는 동기화된 사고가 나타난다. 경험 연구들은 동기화된 사고의 결과로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경제 상황과 정치적 사안 등을 인식하는 당파적 편향이 나타남을 보였다(Bartels, 2002; Jerit & Barabas,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당파적 편향이 정당의 이념적 위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 정당의 입장이 더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신과 지지 정당의 입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실제로 그 대상이 지지 정당보다 반대 정당일 때 이념과 쟁점 위치를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Ahler, 2014; Blatz & Mercier, 2018; Levendusky & Malhotra, 2016a). 즉, 정당 지지자들은 당파적 편향이 반대 정당일 때 극단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무당파보다 정당 간 입장 차이를 더욱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또한 같은 집단 내에서도 개인마다 집단에 동일시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이 강할수록 정확성 동기보다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집단 중심 편향이 강하게 나타난다(Leeper & Slothuus, 2014). 따라서 당파 정체성이 강한 정당 지지자가 당파 정체성이 약한 지지자보다 동기화된 사고와 당파적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 정당 양극화 인식 왜곡이 더 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Van Boven et al., 2012). 선행 연구들에서도 당파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정당 간 이념 차이를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J. E. Rothschild et al., 2019; Westfall et al., 2015).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며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한국 정당 체제 속에서 한국 유권자의 정당 지지를 서구와 같이 안정적인 일종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적이다(장승진, 2015; 한정훈, 2019). 정당 지지를 단순히 선호 표현 혹은 투표 선택으로 등치 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적 애착(Bartels, 2002; Campbell et al., 1960)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최근 연구들은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기동, 이재묵, 2021; 박원호, 신화용, 2014).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한국의 정당 지지자들은 정책 입장, 정부 성과 평가, 후보자 이념 인식 등 정치적 태도와 인식을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길정아, 2020; 길정아, 강원택, 2020; 길정아, 하상응, 2019; 김성연, 2015; 장승진, 2021). 하지만 주관적인 양극화 인식에서 당파적 편향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장승진과 한정훈(2021)의 연구는 주목할 만 한데, 특정 이념에 편향된 유튜브 채널 시청이 반대 정당을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당파적 편향이 반대 정당의 입장과 정당 간 차이를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정당 지지자들은 당파 정체성이 강할수록 정당 간 이념 및 쟁점 위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 2> 정당 지지자들이 정당의 이념 및 쟁점 위치를 추론할 때 그 대상이 지지 정당일 때보다 반대 정당일 때 이념적 극단성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제3절. 당파적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

반대 정당의 '그들'이 지지 정당의 '우리'와 얼마나 이견을 보이는지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당의 위치 인식은 여러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있어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양극화 인식에 따라 쟁점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는데, 태도 극단성을 강화하는지 혹은 완화하는지 그 방향에 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다(Ahler, 2014; Levendusky & Malhotra, 2016b). 반면 실제 대중의 이념적 양극화 여부와 별개로, 여러 경험적 증거들은 이러한 양극화 인식이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교적 일관된 가능성을 제시한다(Enders & Armaly, 2019). 먼저, 정당 간 입장 차이가 클수록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고 정당 간 갈등에 걸린 이해관계가 커지게 된다(Rogowski & Sutherland, 2016). 이는 지지 정당은 긍정적으로 반대 정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유인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정당 간 차별성이 더 뚜렷해지면서 나타나는 더 큰 선호의 차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반응으로, 무당파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양극화 인식의 왜곡은 반대 정당의 극단성을 더 과장하는 비대칭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우려는 그 주체인 반대 정당을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로 간주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중도적 위치에 있으며 민주주의에서 협력과 타협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극단주의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Levendusky & Malhotra, 2016b). 따라서 반대 정당 지지자들을 강경한 극단주의자로 보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당파 간 적대감을 부추긴다. 웹스터와 아브라모비츠(Webster & Abramowitz, 2017)의 연구는 지지 정당 후보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에도, 유권자들은 반대 정당 후보가 극단적일수록 반대 정당과 후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극단성에 대한 반감이 반대 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동기화된 사고는 이념적 극단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당파성에 따라 정당에 대한 평가에 차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단 과정에서 지지 정당에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반면 반대 정당의 부정적인 정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Banda & Cluverius, 2018).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정적인 자질 평가는 소속 정당의 지지자보다 반대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Goren, 2002). 엘리트 수준의 이념적 양극화의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에서 반대정당 정치인의 이념적 극단성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처벌되는 반면, 지지정당 정치인의 평가는 이념적 극단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anda & Cluverius, 2018; Sood & Iyengar, 2018). 즉 당파적 편향이 지지 정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반대 정당은 극단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의 극단성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 선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하여 심지어 지지 정당의 부정적인 정보가 오히려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당파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당 지지자들은 반대 정당의 평가를 더 부정적으로 깎아내림으로써 기존의 정당 선호를 유지할 수 있다(Groenendyk, 2018). 긍정적인 평가란 결국 상대적인 것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반대 정당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정당 지지는 차악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정당 선호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경험적 증거로, 최근 한 연구는 지지 정당 정치인의 스캔들을 접했을 때 같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반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편견은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밝힌다(Z. K. Rothschild et al., 2021). 지지 정당의 극단성을 인식하는 상황은 이와 유사하게 당파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선호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 정당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파적 편향을 검증한 일부 국내 연구들도 정치적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사안의 중요성이 당파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들에서 회고적 평가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길정아, 강원택, 2020; 오현주 외., 2014).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 이념적 극단성은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정당 양극화 인식은 반대 정당에 대한

호감을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 극화된 태도가 나타날 것임을 주장한다. 관련하여 장승진과 한정훈(2021)의 연구에서 편향된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은 반대 정당을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며 더 큰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적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 간 상관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양극화 수준이 정당에 대한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극단성 인식의 영향이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당파 집단 간 강한 적대감은 당파적 편향과 과장된 양극화 인식에 기인함을 보이고자 한다.

<가설 3> 정당 지지자들은 정당 간 이념 및 쟁점 위치 차이를 크게 인식할수록 지지 정당과 반대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 극화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정당 극단성 인식이 정당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정당의 지지자들보다 반대 정당 지지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데이터 및 변수 측정

먼저 본 연구는 집합 수준에서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 추세와 변수 간 대략적인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의 지난 10년간 전국 단위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제18대, 제19대,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사(2012, 2017, 202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조사(201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조사(2016)를 포함한다. 표본 크기는 최소 2,110명에서 최대 3,361명이며, 모든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일반 유권자 대상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할당 표집을 기본으로 각 조사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패널이 포함되었다. 모든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문항 중 정당에 대한 호오도, 정당과 응답자 본인의 진보-보수 이념 위치 평가, 지지 정당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수준 횡단 분석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널 조사' 1차, 2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는 당파 정체성과 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여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이 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패널 조사로 선거 전 1차 조사(2022년 1월)와 선거 후 2차 조사(2022년 3월)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2차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2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에 대한 호오도, 정당과 응답자 본인의 이념 및 정책 위치 평가, 정치 관심도는 1차 조사에서 수집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현재 한국의 당파적 대립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변수 측정에 사용된 전체 문항 및 응답 선택지는 부록에 포함하였다.

주요 종속 변수는 횡단 분석에서 정서적 양극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선호이며, 총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번째로 정서적 양극화 연구에서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당에 대한 호오도를 사용한다. 정당 호오도는 '매우 싫어한다' 0점부터 '보통' 5점, '매우 좋아한다' 10점까지 11점 척도로 값이 커질수록 높은 호감을 나타낸다.

분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에 대한 호오도와 정당 호오도 차이를 사용한다. 정당 호오도 차이는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 호오도와 반대 정당의 호오도 점수 차이를 구하여 정당 선호의 차별성을 측정한다. 가장 낮은 값인 0점은 정당 간 무차별한 선호를 나타내며 높은 값일수록 더 큰 선호의 차이를 나타낸다.

두번째는 사회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사회적 거리 척도로, 여기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어느 정도 편하게 느끼는지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 척도는 항목 간 위계성이 있는 누적적인 척도로(김석호 외, 2013),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순으로 더 높은 수준의 친밀함을 가졌다고 보고 위 4가지 항목에 대해 묻는다. 값이 커질수록 외집단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커지도록 조작하여 더 차별적인 선호를 의미한다. 각 항목에 친밀함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평균값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마지막 척도는 정당 지지자 특성 평가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의 특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긍정적 특성 평가는 정치적으로 타협 가능한지,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지를 묻는다. 부정적 특성 평가는 편협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묻는다. 긍정적 특성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을수록, 부정적 특성 평가에는 동의할수록 값이 커지도록 조작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타 정당 지지자에 대한 편견의 증가를 의미한다. 각각 두 항목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긍정적 특성 평가 변수와 부정적 특성 평가 변수를 분석한다. 정당 호오도의 경우 반대 정당에 비교하여 지지 정당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를 측정한다면, 사회적 거리 척도와 특성 평가 척도는 반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설명 변수는 정당 양극화 인식과 정당 극단성 인식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가 문항을 사용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두 정당의 진보-보수 이념 위치와 함께, 이념 갈등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이념을 가르는 경제, 안보, 사회 쟁점 위치 인식을 포함하였다. 각 항목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중도를 의미하는 0점을 기준으로 정당 위치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값이 작아져

가장 극단적으로 −5점을 가지도록 조작하였다.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값이 커져 가장 극단적인 보수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일 경우 +5점을 가진다. 두 정당의 위치 평가 차이(절댓값)가 해당 영역에서 응답자의 정당 양극화 인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당 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할 경우 최솟값 0점부터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를 인식할 경우 최댓값 10점을 가진다. 각 영역별로 두 정당의 위치와 양극화 인식을 확인한 후, 네 영역에 걸친 두 정당의 차이의 평균값이 정당 양극화 인식 변수로 회귀 모형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당 극단성 인식 변수는 정당의 위치가 얼마나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다. 응답자가 평가한 각 정당의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균의 절댓값을 사용하여, 중도적 위치를 나타내는 0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절대적 거리를 구한다.

응답자 본인의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가는 실제 정당의 위치와 개인의 태도 극단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정당 위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진보적일 경우 −5점부터 가장 보수적일 경우 5점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조작하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각 당파 집단 별로 평균 위치를 구하여 실제 정당 위치의 지표로 사용한다. 영역별로 두 당파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실제 당파적 양극화 정도로 보고, 응답자들이 평가한 정당 양극화 인식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태도 극단성은 횡단 분석에서 이념적 양극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태도 극단성 변수는 이념 및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측정한다. 영역별 자기 위치 평가의 평균값을 구한 뒤 절댓값을 취하여, 응답자의 평균적인 위치가 0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한다. 최소 0점부터 일관적으로 강한 보수적인 혹은 진보적인 태도를 가질 때 최대 5점까지 나타난다.

당파 정체성 변수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당파 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지지 정당 유무와 그 강도를 묻는 기존의 정당일체감 문항보다 지지 정당에 느끼는 주관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를 더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Huddy et al., 2015).[1] 각 제시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묻는데 값이

[1] 다음은 당파 정체성 문항으로, [정당]에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 제시되었다.
1.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2.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

클수록 당파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7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척도로 사용한다.[2] 지지 정당이 없고 다른 정당에 비해 가까이 느끼는 정당도 없다고 응답한 순수 무당파의 경우 측정되지 않았다.

지지 정당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타 정당, 무당파 네 범주로 구성되었으나, 주로 분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까이 느끼는 정당이 있는 편향적 무당파까지 정치적 태도 형성에 있어 당파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기존의 신념 혹은 당파성에 따라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동기화된 사고에 의한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장승진, 2021; 하상응, 길정아, 2020). 따라서 정치 관심도와 정치 지식을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그 밖에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 소득, 거주 지역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3. 나는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4.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5.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
6.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7. 나는 [정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정당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곤 한다.

[2] 척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0.88이다.

[표 1] 변수 요약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당 호오도 차이	2,110	3.823	2.887	0	10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2,110	4.153	2.816	0	10
국민의힘 호오도	2,110	3.683	2.741	0	10
사회적 거리	2,110	1.796	1.032	0	4
긍정적 특성 평가	2,110	1.394	0.654	0	3
부정적 특성 평가	2,110	1.336	0.742	0	3
정당 양극화 인식	2,110	3.699	2.099	0	10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인식	2,110	1.283	1.056	0	5
국민의힘 극단성 인식	2,110	1.939	1.440	0	5
당파 정체성	1,661	1.439	0.602	0	3
태도 극단성	2,110	1.074	0.970	0	5
지지 정당	2,110	100%			
무당파	449	21.28%	-	0	1
더불어민주당	836	39.62%	-	0	1
국민의힘	622	29.48%	-	0	1
기타정당	203	9.62%	-	0	1
정치 관심도	2,110	2.510	0.667	0	3
정치 지식	2,110	3.796	1.441	0	6
연령	2,110	3.471	1.423	1	5
여성	2,110	0.518	0.500	0	1
교육	2,110	3.017	1.113	1	5
소득	2,082	4.819	2.383	1	11
거주 지역	2,110	100%			
서울	385	18.25%	-	0	1
인천/경기	655	31.04%	-	0	1
대구/경북	221	10.47%	-	0	1
부산/울산/경남	329	15.59%	-	0	1
광주/전라	212	10.05%	-	0	1
대전/충청/세종	226	10.71%	-	0	1
강원/제주	82	3.89%	-	0	1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각 범주의 비율 보고

제2절. 분석 방법

먼저, 당파성이 정당의 극단성과 양극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회귀식 1>

$$Y_i = \alpha + \beta_1 \textit{지지 정당}_i + \beta_2 \textit{당파 정체성}_i + \beta_3 \textit{태도 극단성}_i + \gamma X_i + \epsilon_i$$

Y_i는 정당 양극화 인식과 정당 극단성 인식이며, 지지 정당, 당파적 정체성, 태도 극단성이 설명 변수이다. α는 상수, X_i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통제 변수들의 벡터를, ε_i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두 종속변수 모두 연속형 변수로 OLS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먼저 정당 양극화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무당파와 기타정당 지지자를 포함하여 당파 정체성 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당파 정체성 변수를 포함한 전체 모형을 추정한다. 당파 정체성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β_2를 추정하여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설1>을 검증한다.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인식과 국민의힘 극단성 인식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당파성에 따라 비대칭적인 극단성 인식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지 정당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β_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여 <가설2>를 검증할 것이다. 또한 이 모형에서도 당파적 정체성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정당 양극화 인식이 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회귀식 2>

$$Y_i = \alpha + \beta_1 \textit{정당 양극화 인식}_i + \beta_2 \textit{지지 정당}_i + \beta_3 \textit{당파 정체성}_i + \beta_4 \textit{태도 극단성}_i + \gamma X_i + \epsilon_i$$

종속 변수는 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선호로 정당 호오도 차이, 사회적 거리, 지지자 특성 평가 각 척도에 대해 개별적인 모형으로 각각 추정하였다. 모든 모형은 OLS 선형 회귀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설명 변수는 정당 양극화 인식으로 회귀계수 β_1 이 양의 값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여 <가설3>을 검증한다. 지지 정당, 당파적 정체성, 태도 극단성 변수 역시 모형에 포함하였다. X_i는 모형에 포함된 나머지 모든 통제 변수들의 벡터를, ε_i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당 극단성 인식이 정당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회귀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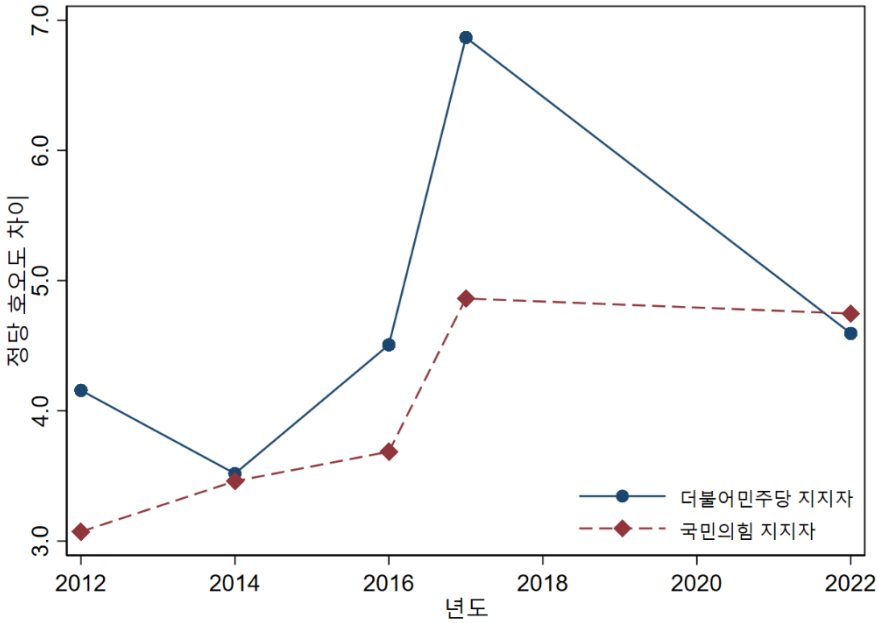
$$Y_i = \alpha + \beta_1 \textit{더불어민주당 극단성 인식}_i + \beta_2 \textit{국민의힘 극단성 인식}_i + \beta_3 \textit{지지 정당}_i + \beta_4 \textit{더불어민주당 극단성 인식}_i \times \textit{지지 정당}_i + \beta_5 \textit{국민의힘 극단성 인식}_i \times \textit{지지 정당}_i + \gamma X_i + \epsilon_i$$

종속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호오도와 국민의힘 호오도 두 변수이다. 대상 정당의 극단성 인식 변수와 지지정당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가설 4>를 검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호오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β_1)보다 국민의힘 지지자($\beta_1 + \beta_4$)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힘 호오도 모형의 경우 반대로 국민의힘 극단성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의힘 지지자($\beta_2 + \beta_5$)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β_2)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양극화 양상

[그림 1] 양대 정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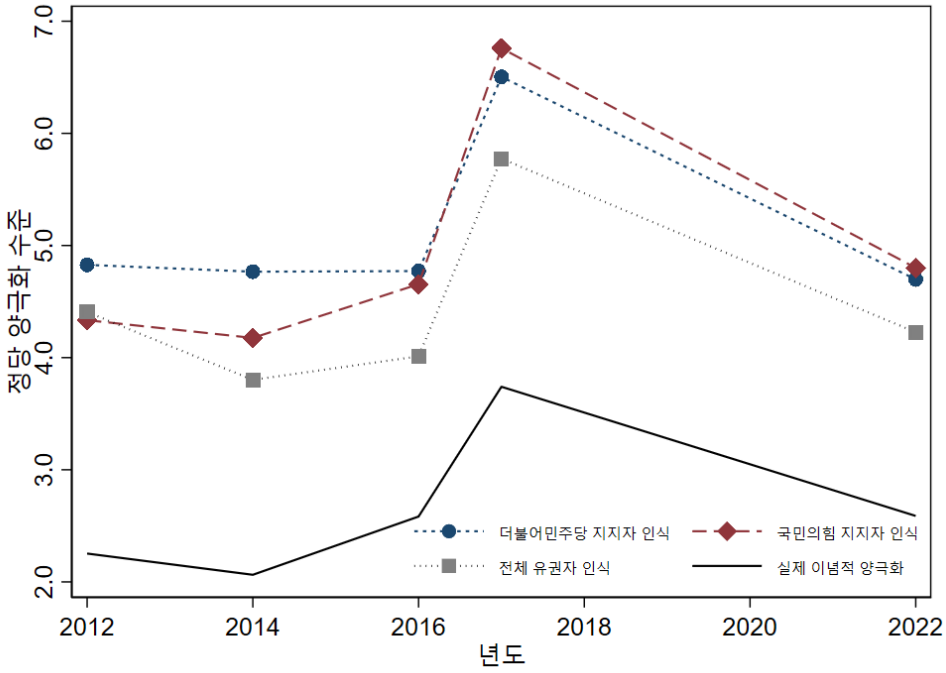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최근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 현상이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림 1]은 2012년과 2022년 사이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 추이를 보여준다.[3] 2016년까지 지지 정당과 반대 정당의 호오도 차이는 3에서 4점대에서 소폭으로 증감하며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사이 두 정당 지지자들 모두 호오도 차이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 구도가 부각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당파 간 적대감이 격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더불어민주당

[3] 잦은 당명 변경과 합당·분당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정당 체제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대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흐름이 이어져오고 있고 유권자들 또한 안정적인 정당일체감을 가진다(박원호, 신화용, 2014). 따라서 2022년 정당명을 기준으로 각 시기의 양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지지자들의 경우 평균적인 정당 간 호오도 차이가 6.87점에 달했다.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극심했던 호오도 차이가 줄어든 한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전보다 감소하긴 하였지만, 현재 양당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실제 이념적 양극화와 양극화 인식, 2012-2022



[그림2]는 2012년과 2022년 사이 진보-보수 차원에서 양대 정당 간 실제 이념적 양극화와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첫번째로, 유권자들은 실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념적 차이보다 더 양당 간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양당 지지자들은 무당파와 기타 정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 평균보다 이러한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전 시기에 걸쳐 일관적으로 정당 양극화 인식은 실제 양극화 수준보다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났다. 두번째로, 실제 이념적 양극화와 양극화 인식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보다 과장되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이념적 양극화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념적 양극화 인식의 패턴은 앞서 살펴본 정서적 양극화의 추이와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가 시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두 현상 간 상관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집합 수준의 변화의 해석을 통해 최근 당파적 양극화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시기 별 당파 집단의 평균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탈과 같은 집단 구성의 변화로 인한 변화인지 구성원들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횡단 분석을 통해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 간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2] 지지 정당에 따른 양대 정당 호오도 평균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국민의힘 호오도	호오도 차이
더불어민주당	6.35 (2.01)	1.96 (2.11)	4.60 (2.86)
국민의힘	1.75 (1.99)	6.18 (2.13)	4.75 (2.89)
기타정당	3.88 (2.28)	3.18 (2.30)	2.81 (2.24)
무당파	3.52 (2.12)	3.66 (2.02)	1.81 (1.92)
전체	4.15 (2.82)	3.68 (2.74)	3.86 (2.90)

*평균값과 표준편차(괄호) 보고

[표 2]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에 있어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타정당 지지자와 무당파에 비해 지지 정당에는 현저하게 높은 호감을, 반대 정당에는 낮은 호감을 표하였다.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은 서로를 반대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정당 간 차별적인 태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호오도 차이를 지지 정당별로 비교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기타정당 지지자와 무당파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지지 정당에 대한 호오도와 양대 정당 호오도 차이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낮은 호감을 보였다($t=1.966$, $p=0.049$).

[4] 지지 정당보다 반대 정당 호오도가 더 높은 역선호를 보인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26명(3.11%), 국민의힘 26명(4.18%).

[표 3] 지지 정당에 따른 사회적 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타정당	무당파	전체
직장 동료					
거리감 낮음	49.40	40.84	53.20	47.66	46.87
거리감 보통	33.85	38.26	31.03	39.64	36.11
거리감 높음	16.75	20.90	15.76	12.69	17.01
가까운 이웃					
거리감 낮음	50.00	41.80	52.71	50.33	47.91
거리감 보통	31.70	37.30	30.54	37.86	34.55
거리감 높음	18.30	20.90	16.75	11.80	17.54
절친한 친구					
거리감 낮음	42.58	37.94	39.41	45.43	41.52
거리감 보통	26.20	34.57	32.51	34.08	30.95
거리감 높음	31.22	27.49	28.08	20.49	27.54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					
거리감 낮음	35.41	29.74	35.96	40.76	34.93
거리감 보통	26.56	35.05	32.51	35.63	31.56
거리감 높음	38.04	35.21	31.53	23.61	33.51
사회적 거리 척도 평균 (표준편차)	1.83 (1.08)	1.90 (0.97)	1.77 (1.01)	1.61 (1.01)	1.80 (1.03)

*응답자의 비율과 집단 별 평균값과 표준편차(괄호) 보고

이어서 타 정당 지지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지지 정당별로 확인하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일 경우 약 30% 이상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 유권자 사이에서도 당파성에 기반한 편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당파에 비해 당파 집단에서 높은 사회적 거리 응답 비율과 높은 척도 평균값이 나타나고 있다. 무당파와 척도 평균값 차이를 분석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t=−3.582, p=0.000)와 국민의힘 지지자(t=−4.719, p=0.000)가 무당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양당 지지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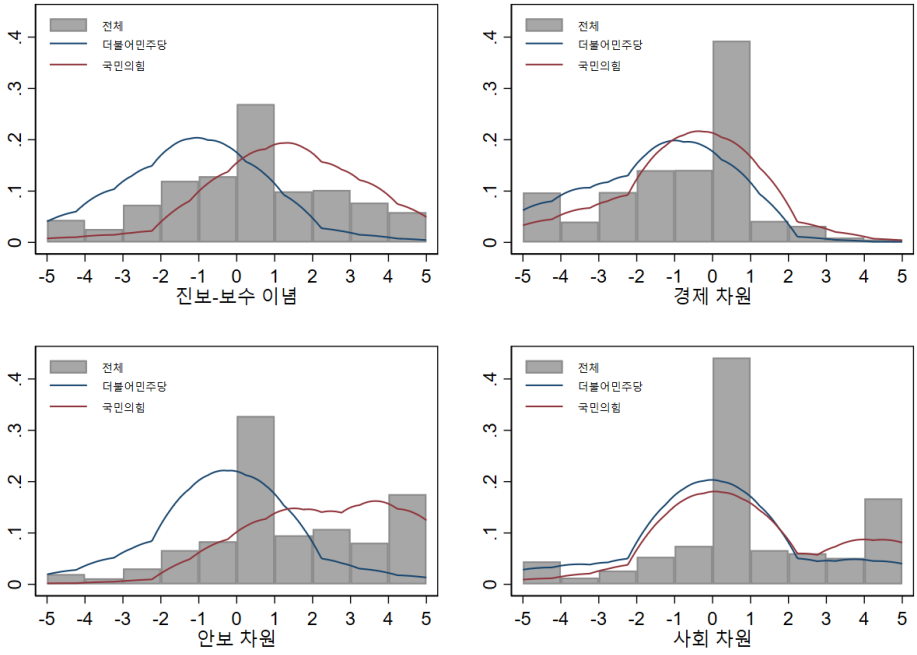
[표 4] 지지 정당에 따른 특성 평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타정당	무당파	전체
타협가능성					
편견 낮음	47.61	48.39	53.69	50.33	49.00
편견 높음	52.39	51.61	46.31	49.67	51.00
애국적					
편견 낮음	63.88	63.88	66.08	74.39	67.96
편견 높음	36.12	36.12	33.92	25.61	32.04
긍정적 특성*	1.45(0.66)	1.40(0.67)	1.33(0.66)	1.31(0.61)	1.39(0.65)
편협함					
편견 낮음	59.09	59.09	54.82	65.92	59.48
편견 높음	40.91	40.91	45.18	34.08	40.52
이기적					
편견 낮음	63.52	63.52	62.38	71.94	65.69
편견 높음	36.48	36.48	37.62	28.06	34.31
부정적 특성*	1.34(0.77)	1.43(0.73)	1.29(0.77)	1.22(0.68)	1.34(0.74)

*응답자의 비율과 집단 별 평균값과 표준편차(괄호)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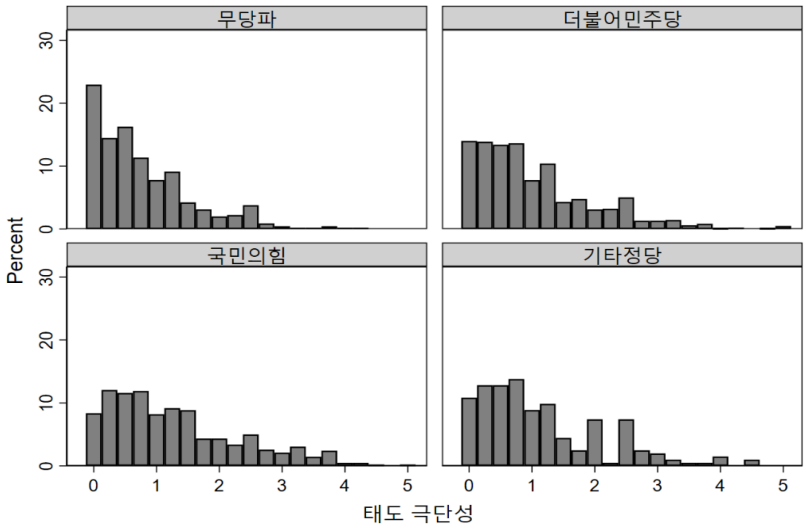
[표 4]에서는 타 정당 지지자의 특성 평가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정당 선호를 살펴본다. 당파 사이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30% 이상이 높은 편견을 보이고 있다. 무당파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가 긍정적 특성(t=−3.833, p=0.000/t=−2.473, p=0.014)과 부정적 특성(t=−2.881, p=0.004/t=−4.795, p=0.000)에서 더 높은 편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당파 집단 간 비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부정적 특성 평가에서 더 높은 편견을 보인다(t=−2.160, p=0.031). 지금까지 정당과 그 지지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정당 호오도, 사회적 거리, 특성 평가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의 당파적 태도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처럼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선호의 차이는 무당파보다는 정당 지지자들, 특히 양대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양대 정당 지지자의 이념 및 쟁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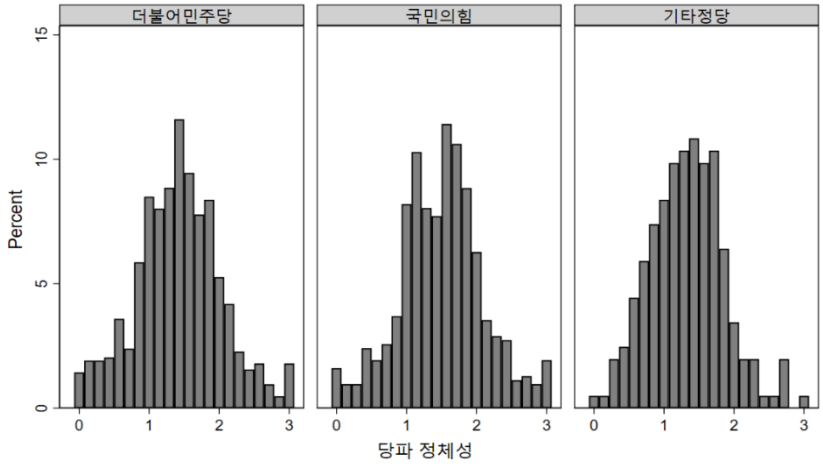
[그림 3]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이념 및 쟁점 위치 분포를 보여준다. 양당 지지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위치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지지 정당 별로 커널 밀도 분포를 추정하여, 정당 간 차이를 확인했다. 진보-보수 이념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진보적 성향,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보수적 성향을 보여 당파 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보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양당 간 차이를 보인다. 반면 경제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는 두 정당 지지자들이 비슷하게 분포하여 대부분의 영역이 중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당파적 차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각 당파 집단의 이념적 위치와 정당 간 차이에 상응하여 양극화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여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림 4] 지지정당 별 태도 극단성 분포



지지정당 별 태도 극단성 변수의 분포에서도 대부분이 중도적 위치에 있으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는 소수이다. 3점 이상의 비교적 강한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6.0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 5.14%,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10.28%에 해당한다. 태도 극단성 역시 무당파에 비해 정당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집단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에도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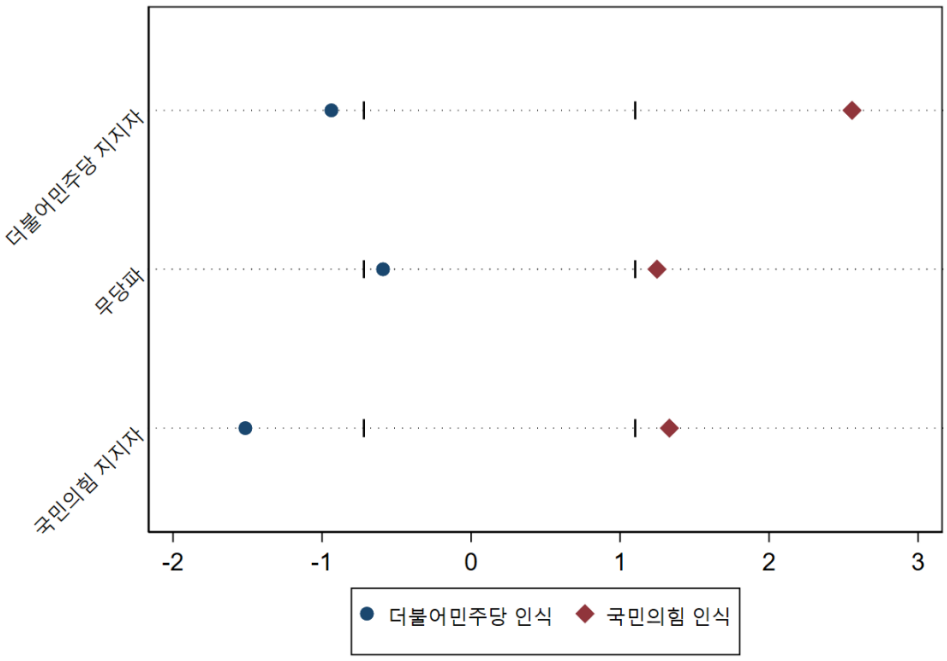
[그림 5] 지지정당 별 당파 정체성 분포



마지막으로 모든 당파 집단에서 당파 정체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양극화 인식과 그 영향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당파적 편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지지 정당별 당파 정체성의 분포는 대체로 정규성을 띄는 유사한 형태인데, 기타정당 지지자의 경우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지지자 집단의 평균적인 당파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집단보다 더 강하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t = -2.321$, $p = 0.020$). 유권자들 사이에서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강한 태도 극단성과 당파 정체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당파성에 따른 정당 위치와 양극화 인식

[그림 6] 당파성에 따른 정당 위치 인식



[그림 6]은 당파성에 따른 각 집단의 정당 위치 인식을 보여준다. 검은 막대는 이념 및 경제, 안보, 사회 쟁점에 결쳐 평균적인 정당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데, 왼쪽 막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오른쪽 막대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실제 위치를 나타낸다. 당파성이 없는 무당파의 경우 두 정당의 위치를 모두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당파를 준거 집단으로 삼아 비교했을 때 두 정당의 지지자들은 실제 정당의 위치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진보적으로, 국민의힘은 더 보수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왜곡이 이념적 차이를 과장하여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로 지지 정당보다 반대 정당의 위치를 과장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당파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Westfall et al., 2015)의 발견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주로 반대 정당의 위치를 극단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과장된 양극화 인식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양대 정당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인식	국민의힘 지지자 인식	무당파 인식	당파 집단 실제 위치
이념	더불어민주당	−1.230 (2.108)	−2.167 (2.600)	−0.713 (2.127)	−1.206 (1.850)
	국민의힘	2.953 (2.354)	2.141 (1.831)	1.392 (2.120)	1.383 (1.984)
	정당 간 차이	4.697 (2.857)	4.801 (3.018)	2.759 (2.746)	2.588
경제	더불어민주당	−0.642 (2.038)	0.791 (2.641)	0.764 (2.109)	−1.567 (1.861)
	국민의힘	3.502 (1.861)	0.559 (1.741)	1.706 (2.056)	−0.715 (1.843)
	정당 간 차이	4.293 (2.671)	2.389 (2.249)	1.815 (2.083)	0.852
안보	더불어민주당	−1.505 (1.677)	−3.572 (1.880)	−1.773 (2.182)	−0.276 (1.849)
	국민의힘	2.969 (2.180)	2.129 (1.717)	1.374 (2.003)	2.535 (2.020)
	정당 간 차이	4.708 (2.706)	5.781 (2.780)	3.463 (3.002)	2.812
사회	더불어민주당	−0.372 (1.787)	−1.111 (2.643)	−0.641 (2.147)	0.172 (2.414)
	국민의힘	0.803 (2.947)	0.495 (1.981)	0.519 (2.006)	1.204 (2.459)
	정당 간 차이	3.041 (2.565)	3.133 (2.935)	1.949 (2.422)	1.032
전체 영역 평균	더불어민주당	−0.937 (1.200)	−1.515 (1.350)	−0.591 (1.260)	−0.719 (1.208)
	국민의힘	2.557 (1.556)	1.331 (1.112)	1.248 (1.399)	1.102 (1.251)
	정당 간 차이	4.185 (2.065)	4.026 (2.010)	2.497 (1.919)	1.821

*평균값과 표준편차(괄호) 보고

[표 5]는 영역 별로 각 당파 집단의 평균적인 정당 위치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의 정당 지지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실제보다 정당 간 차이를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왼쪽 열에 위치한 실제 당파 집단의 평균적인 위치를 비교했을 때, 두 정당은 1점에서 2.5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각 영역별로 정당 지지자들이 인식하는 차이는 대부분 4점대로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제 영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정당 간 차이를 더 크게 느끼는 반면(t=14.385, p=0.000),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안보 영역에서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t=−7.404, p=0.000). 이념, 사회, 전체 영역 평균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슷한 정도로 정당 간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파성이 없는 무당파도 정당 간 차이를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지만, 양대 정당 지지자의 인식은 그보다 훨씬 더 과장되었다. 이는 현재 정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극심한 정당 간의 간극은 모든 유권자에게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넘어 당파성에 의해 증폭된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양대 정당 위치에 대한 각 당파 집단의 인식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모두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위치로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일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평가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장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앞 절에서 경제 영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분포는 진보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단봉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당 지지자들 모두 이른바 친서민 경제 정책에 대한 선호를 가지기 때문에, 당파성에 따라 반대 정당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영역에서 두 당파 집단의 선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두 정당 간 차이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오히려 잘 보여주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견해가 수렴하는 영역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정당 간 이념적 차이는 실제보다 매우 크게 과장되어 나타났다.

지금까지 당파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당파성은 정당 양극화 인식과 정당에 대한 태도를 가르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어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당파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6] 개인 수준에서 주요 설명 변수 간 상관관계

	정당 양극화 인식	태도 극단성	당파 정체성
정당 양극화 인식	1.0000		
태도 극단성	0.4765*	1.0000	
당파 정체성	0.3093*	0.2122*	1.0000

* p<.001

이를 위하여 개인 수준에서 정당 양극화 인식은 태도 극단성과 당파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였다. [표 6]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구한 세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세 변수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 양극화 인식이 태도 극단성과 당파 정체성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뒷받침한다.

[표 7]은 정당 양극화 인식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기타정당 지지자와 무당파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1)에서 지지정당의 유무는 양대 정당의 양극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양극화 인식이 1.017점, 국민의힘 지지자는 0.493점만큼 더 높았다. 무당파와 기타정당 지지자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수반할 때 당파성의 영향이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태도 극단성 또한 정당 양극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태도 극단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인식하는 두 정당 간 차이는 0.825점 증가한다.

[표 7] 정당 양극화 인식 결정 요인

	(1) 정당 양극화 인식		(2) 정당 양극화 인식	
더불어민주당	1.017***	(0.106)	(기준 집단)	
국민의힘	0.493***	(0.114)	-0.544***	(0.094)
기타정당	0.211	(0.147)		
당파 정체성			0.616***	(0.077)
태도 극단성	0.825***	(0.040)	0.847***	(0.047)
정치 관심도	0.635***	(0.062)	0.681***	(0.083)
정치 지식	0.079**	(0.027)	0.065*	(0.032)
연령 집단	0.171***	(0.029)	0.119***	(0.035)
여성	-0.471***	(0.077)	-0.377***	(0.090)
교육	0.058	(0.036)	0.062	(0.042)
소득	0.032	(0.017)	0.045*	(0.019)
인천/경기	-0.173	(0.110)	-0.039	(0.130)
대구/경북	-0.138	(0.145)	-0.090	(0.176)
부산/울산/경남	-0.200	(0.129)	-0.122	(0.150)
광주/전라	-0.124	(0.149)	-0.080	(0.169)
대전/충청/세종	-0.030	(0.144)	0.043	(0.167)
강원/제주	-0.130	(0.209)	-0.227	(0.237)
상수	-0.200	(0.244)	-0.164	(0.326)
N	2,082		1,445	
R^2	0.346		0.35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모형(2)에서는 양대 정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기대했던 것처럼 당파 정체성은 양극화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파 정체성이 가장 높은 사람(3점)은 가장 낮은 사람(0점)보다 양극화 인식이 1.849점만큼 높아, 실질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형(1)에서 당파성의 효과는 무당파보다 양당 지지자들이 정당 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함을 의미했다면, 모형(2)에서 당파성의 효과는 당파 정체성이 강한 지지자가 약한 지지자보다 정당 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도 태도 극단성의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정당 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정당 극단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위치가 더 극단적이라고 인식했다. 그 차이는 0.3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보다 국민의힘의 위치를 1.263점 더 극단적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는 당파성이 정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반대 정당이 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당파적 편향이 나타남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당파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념적 태도가 강할수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치를 더 극단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 양극화 인식이 태도 극단성과 당파 정체성 두 요인을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8] 정당 극단성 인식 결정 요인

	(3)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4) 국민의힘 극단성	
국민의힘	0.340***	(0.052)	-1.263***	(0.066)
당파 정체성	0.214***	(0.042)	0.199***	(0.054)
태도 극단성	0.451***	(0.026)	0.411***	(0.032)
정치 관심도	0.169***	(0.046)	0.290***	(0.058)
정치 지식	0.009	(0.018)	0.124***	(0.022)
연령 집단	0.025	(0.019)	-0.045	(0.024)
여성	-0.132**	(0.050)	-0.048	(0.063)
교육	0.002	(0.023)	0.135***	(0.029)
소득	0.027*	(0.011)	0.032*	(0.014)
인천/경기	-0.093	(0.072)	0.060	(0.090)
대구/경북	-0.155	(0.097)	0.050	(0.123)
부산/울산/경남	-0.171*	(0.083)	0.051	(0.104)
광주/전라	-0.139	(0.094)	-0.046	(0.118)
대전/충청/세종	-0.077	(0.093)	0.067	(0.117)
강원/제주	0.109	(0.131)	-0.209	(0.165)
상수	-0.152	(0.180)	0.221	(0.227)
N	1,445		1,445	
R^2	0.295		0.35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제3절. 정당 양극화 인식과 정서적 양극화

[표 9] 정당 호오도 결정 요인

	(5) 정당 호오도 차이		(6) 지지 정당 호오도		(7) 반대 정당 호오도	
양극화 인식	0.608***	(0.036)	0.179***	(0.029)	-0.429***	(0.029)
당파 정체성	0.977***	(0.107)	1.113***	(0.085)	-0.124	(0.085)
태도 극단성	0.275***	(0.070)	0.154**	(0.056)	-0.094	(0.056)
국민의힘	-0.058	(0.130)	-0.409***	(0.104)	-0.287**	(0.104)
정치 관심도	0.545***	(0.116)	0.306***	(0.092)	-0.131	(0.092)
정치 지식	0.109*	(0.043)	-0.053	(0.035)	-0.179***	(0.035)
연령 집단	0.096*	(0.048)	0.093*	(0.038)	0.009	(0.038)
여성	-0.024	(0.122)	-0.128	(0.098)	-0.037	(0.098)
교육	-0.040	(0.057)	-0.103*	(0.046)	-0.043	(0.046)
소득	-0.031	(0.026)	0.020	(0.021)	0.031	(0.021)
인천/경기	0.180	(0.176)	0.107	(0.141)	-0.028	(0.141)
대구/경북	0.245	(0.240)	0.258	(0.191)	0.099	(0.191)
부산/울산/경남	0.310	(0.202)	0.521**	(0.163)	0.165	(0.162)
광주/전라	0.244	(0.229)	0.115	(0.184)	-0.181	(0.184)
대전/충청/세종	-0.016	(0.225)	0.253	(0.182)	0.081	(0.182)
강원/제주	0.714*	(0.325)	0.136	(0.257)	-0.396	(0.257)
상수	-1.693***	(0.442)	3.064***	(0.354)	5.046***	(0.353)
N	1,394		1,445		1,445	
R^2	0.421		0.257		0.25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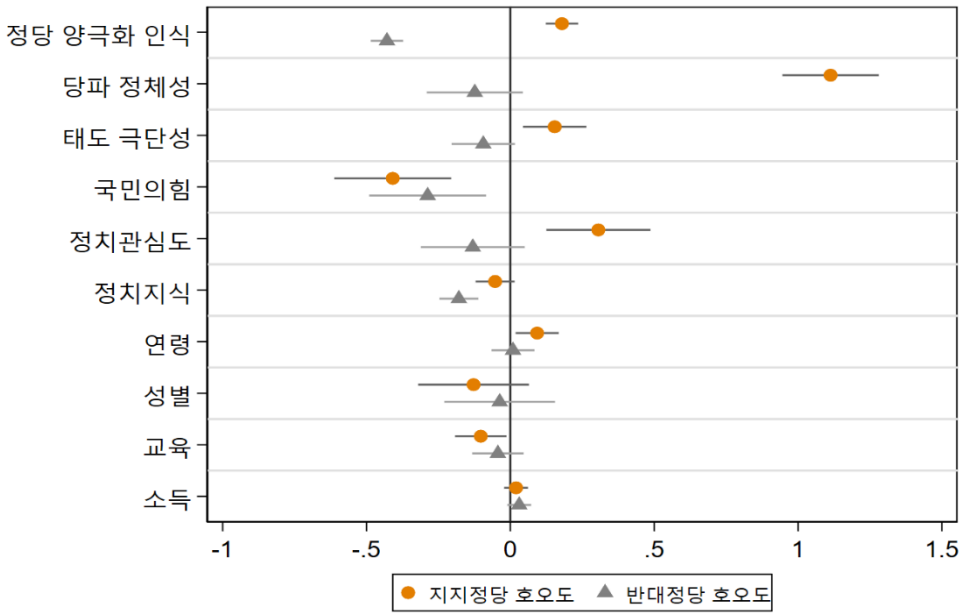
과장되고 비대칭적인 양극화 인식이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절에서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당 호오도 평가, 사회적 거리, 특성 평가라는 서로 다른 지표에서 양극화 인식 수준에 따라 정당 선호의 차이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표 9]에서는 정당 양극화 인식이 정당 호오도로 측정된 정당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먼저 정당 호오도 차이를 분석한 모형(5)에서 정당 양극화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양극화 인식이 가장 높은 사람(10점)은 가장 낮은 사람(0점)보다 정당 호오도 차이가 약 6.079점만큼 더 크게 나타나, 정당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파 정체성과 태도 극단성도 양당에 대한 호오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파 정체성과 태도 극단성이 각각 한 단위 증가할수록, 정당 호오도 차이는 0.977점, 0.275점만큼 증가한다. 태도 극단성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도 양극화 인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이념적 양극화가 선행되지 않아도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당에 대한 차별적 선호는 상대적인 것으로, 지지 정당과 반대 정당에 대한 태도 양측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지정당 호오도와 반대정당 호오도를 종속변수로 각기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양극화 인식의 영향은 지지정당 호오도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정당 호오도에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극화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지지정당 호오도는 0.179점만큼 증가하는 한편 반대 정당 호오도는 0.429점만큼 감소하여 두 방향으로 그 차이를 넓히고 있다.

[그림 7]은 지지정당 호오도와 반대정당 호오도에 대하여 추정한 모형(6)과 모형(7)의 설명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시각화한 것이다. 각 설명 변수들이 지지정당 호오도와 반대 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았을 때, 정서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그 차별적인 영향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 양극화 인식의 경우 지지정당과 반대정당 호오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반대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양극화 인식에 의한 정당에 대한 태도 극화는 지지정당보다는 주로 반대정당에 대한 정서적 평가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당파 정체성은 지지정당 호오도에는 약 1.113점 정도의

유의미하고 큰 크기의 영향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체성이 외집단에 대한 반감보다는 기본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선호를 낳는다는 이론적 토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태도 극단성은 지지정당 호오도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이 있지만, 반대정당 호오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 지지 정당 호오도와 반대 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다른 정당 지지자에 대한 편견으로 정서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척도들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8)에서 사회적 거리 척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정당 양극화 인식의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설명 변수 중 당파 정체성만이 사회적 거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파 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사회적 거리는 0.646점 증가한다. 특성 평가에서 나타나는 편견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모형(7), 모형(8)의 분석 결과, 긍정적 특성에는 양극화 인식, 당파 정체성, 태도 극단성의 영향이 모두 나타났고 부정적 특성에는 양극화 인식과 당파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

[표 10] 사회적 거리와 특성 평가의 결정 요인

	(8) 사회적 거리		(9) 긍정적 특성		(10) 부정적 특성	
양극화 인식	0.024	(0.015)	0.035***	(0.010)	0.027*	(0.012)
당파 정체성	0.646***	(0.044)	0.075*	(0.031)	0.273***	(0.034)
태도 극단성	0.050	(0.029)	0.054**	(0.020)	0.019	(0.023)
국민의힘	0.055	(0.054)	-0.011	(0.037)	0.093*	(0.042)
정치 관심도	0.038	(0.048)	-0.027	(0.033)	0.020	(0.037)
정치 지식	0.031	(0.018)	0.024	(0.012)	0.005	(0.014)
연령 집단	-0.024	(0.020)	-0.011	(0.014)	0.006	(0.015)
여성	0.275***	(0.051)	0.113**	(0.035)	0.041	(0.040)
교육	0.095***	(0.024)	0.049**	(0.016)	0.029	(0.018)
소득	-0.031**	(0.011)	-0.009	(0.008)	-0.023**	(0.009)
인천/경기	0.020	(0.073)	0.016	(0.051)	0.021	(0.057)
대구/경북	-0.166	(0.099)	-0.150*	(0.069)	-0.145	(0.077)
부산/울산/경남	-0.088	(0.084)	-0.156**	(0.059)	-0.018	(0.066)
광주/전라	-0.041	(0.095)	0.002	(0.066)	0.096	(0.074)
대전/충청/세종	-0.101	(0.094)	-0.097	(0.066)	0.016	(0.073)
강원/제주	-0.133	(0.133)	0.031	(0.093)	0.122	(0.104)
상수	0.380*	(0.183)	1.024***	(0.128)	0.712***	(0.143)
N	1,445		1,445		1,445	
R^2	0.205		0.061		0.08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정리하면, 대안적 척도를 분석했을 때 양극화 인식은 긍정적 특성 평가와 부정적 특성 평가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크게 느낄수록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타협가능하고 애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편협하고 이기적이라는 데에는 더 동의한다. 모든 모형에서 일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설명 변수는 당파 정체성이었다. 편견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반대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내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지정당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는 당파 정체성이 정당 간 차이를 의미하는 양극화 인식보다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극화 인식은 반대 정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태도를 극화할 수 있다. 앞서 정당 양극화 인식이 당파성에 따라 반대 정당의 극단성을 더욱 과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로 주로 반대 정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러한 정당의 극단성 인식이 정당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당파성의 영향이 개입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정당의 극단성이 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다.

[표 11] 정당 극단성 인식과 정당 호오도의 상관관계

	더불어민주당 극단성과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더불어민주당 극단성과 국민의힘 호오도	국민의힘 극단성과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국민의힘 극단성과 국민의힘 호오도
더불어민주당	0.2615*	-0.1514*	0.1285*	-0.5262*
국민의힘	-0.3840*	0.1787*	-0.2320*	0.1423*
기타정당	-0.3163*	0.0520	0.1419	-0.5546*
무당파	-0.3500*	-0.0824	-0.0893	-0.4551*
전체	-0.2027*	0.1199*	0.2515*	-0.4652*

* p<.001

[표 11]은 당파 집단 별 정당의 극단성 인식과 정당 호오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당파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무당파와 기타정당 지지자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할 때 동일하게 정당의 극단성과 해당 정당의 호오도 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 대상이 반대 정당일 때는 마찬가지로 정당 극단성은 정당 호오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그 대상이 지지 정당일 때는 정당의 극단성과 호오도가 오히려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무당파와 기타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한 정당의 극단성이 다른 정당의 호오도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양대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정당의 극단성은 반대정당의 호오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반대정당의 극단성은 지지정당의 호오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이 이념적으로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 정당을 지지할 경우 오히려 지지정당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반대 정당에 대한 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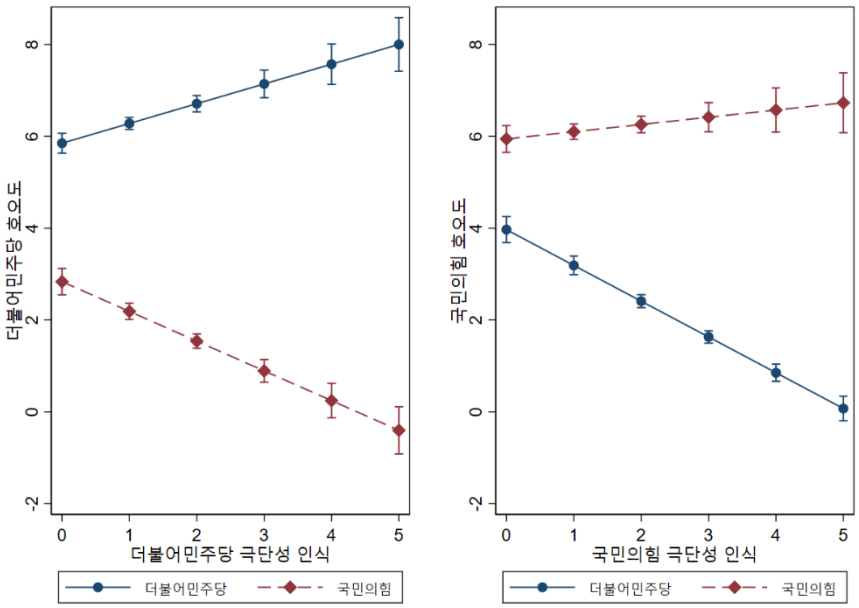
계속해서 정당 극단성 인식과 지지 정당 간 상호작용항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당파성에 따른 정당 극단성의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한다. [표 12]는 양대 정당 지지자들로 한정하여 더불어민주당 호오도와 국민의 힘 호오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호오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11)에서 더불어민주당극단성×국민의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호오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12)에서는 국민의힘극단성×국민의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 호오도에 미치는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이 당파 집단 간 다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12] 당파성에 따른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

	(11)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12) 국민의힘 호오도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인식	0.430***	(0.076)	-0.026	(0.077)
국민의힘 극단성 인식	0.050	(0.049)	-0.779***	(0.050)
국민의힘 지지	-2.722***	(0.213)	1.400***	(0.215)
더불어민주당극단성×국민의힘	-1.078***	(0.102)	0.256*	(0.103)
국민의힘극단성×국민의힘	-0.208*	(0.099)	0.937***	(0.100)
당파 정체성	0.471***	(0.089)	0.480***	(0.089)
태도 극단성	-0.036	(0.061)	0.053	(0.061)
정치 관심도	0.145	(0.096)	0.019	(0.096)
정치 지식	-0.049	(0.037)	-0.097**	(0.037)
연령 집단	0.077	(0.040)	-0.008	(0.041)
여성	-0.095	(0.103)	0.055	(0.104)
교육	-0.004	(0.048)	-0.054	(0.049)
소득	0.034	(0.022)	0.018	(0.022)
인천/경기	0.171	(0.148)	-0.065	(0.149)
대구/경북	0.075	(0.201)	0.375	(0.203)
부산/울산/경남	0.265	(0.171)	0.470**	(0.172)
광주/전라	0.184	(0.194)	-0.211	(0.196)
대전/충청/세종	0.114	(0.191)	0.277	(0.193)
강원/제주	-0.058	(0.270)	-0.179	(0.272)
상수	4.388***	(0.378)	3.619***	(0.381)
N	1,445		1,445	
R^2	0.623		0.6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그림 8] 지지 정당 별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



[그림 8]은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했을 때, 정당 호오도에 정당 극단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적으로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의 호오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불어민주당 호오도는 감소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성 인식에 따른 변화의 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호오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크게 감소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극단성 인식에 따라 국민의힘 호오도가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3] 정당 호오도 선형 결합 검정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Coef.	S. E.	p-value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0.430**	**0.076**	**0.000**
	국민의힘 극단성	0.050	0.049	0.307
국민의힘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0.648**	**0.075**	**0.000**
	국민의힘 극단성	-0.158	0.090	0.077
국민의힘 호오도				
		Coef.	S. E.	p-value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0.026	0.077	0.733
	국민의힘 극단성	**-0.779**	**0.050**	**0.000**
국민의힘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극단성	**0.230**	**0.076**	**0.002**
	국민의힘 극단성	0.158	0.090	0.082

[표 13]은 이러한 지지 정당 별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이 유의미한지 회귀 계수들의 선형 결합에 대한 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호오도에 대하여 두 집단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극단성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호오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극단성 인식의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이 지지하는 바는 양당이 모두 이념적으로 극단화 되었다고 인식할 때에도 이에 반응하여 반대 정당의 평가는 크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반면, 지지 정당의 평가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변함으로써 정서적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 양극화 인식의 양상과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당 지지는 일종의 집단 정체성으로서 정당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편향을 낳고 있다. 분석 결과, 정당 지지자들은 당파 집단 간 차이를 실제보다 더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왜곡은 주로 반대 정당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했다. 그리고 정당 양극화 인식은 지지정당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반대정당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으로 각각 영향을 미쳐 정서적 태도 극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지지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특성 평가에서만 양극화 인식의 제한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정당 극단성 인식의 영향은 당파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은 횡단 자료를 분석하여 양극화 인식과 정당에 대한 태도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정서적으로 극화된 태도가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크게 인식하도록 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패널 데이터 분석, 실험 연구 등을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규명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념적 태도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 당파적 양극화 인식 세 가지 층위의 양극화 현상 간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정치적 태도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의 가능성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한국 유권자들의 당파적 양극화 인식과 실제 현상 간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양극화 인식이 당파적 편향에 의해 비대칭적으로 과장되었음을 보임으로써 당파적 양극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또한 개인의 양극화 인식이 정당과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주관적 양극화 인식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조명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 연장선 상에서 주관적 양극화 인식이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 외에 다른 다양한 정치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극화 인식의 결정 요인으로 확인된 당파 정체성과 태도 극단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외에도

편향된 정보 환경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지적 왜곡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 인식은 향후 연구에서 개인 수준에서 외부 요인이 정당에 대한 극화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가상준. (2020). 정당 간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 한국정당학회, *19*(2), 101-129. doi:10.30992/KPSR.2020.06.19.2.101

강우창, 구본상, 이재묵, 정진웅. (2020).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61*(0), 37-83.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36*, 5-38.

길정아. (2019).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8326

길정아. (2020).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한국정당학회보, *19*(3), 5-37. doi:10.30992/KPSR.2020.09.19.3.5

길정아, 강원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당파적 편향. 한국정당학회보, *19*(4), 101-140. doi:10.30992/KPSR.2020.12.19.4.101

길정아, 하상응.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1), 45-78.

김기동, 이재묵.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2), 57-87.

doi:10.18854/kpsr.2021.55.2.003

김석호, 신인철, 하상응, 정기선. (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김성연. (2015).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2012년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15*(3), 459-491.

박원호, 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오현주, 송진미, 길정아, 강원택. (2014).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69-97.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이재묵. (2014). 엘리트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 투표 참여 및 정치 관심도: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0*(1), 145-168.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25-52.

장승진. (2021). 당파적 양극화 속 새로운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이념적 인식: 윤석열 현상을 사례로. 한국정치학회보, *55*(4), 71-90. doi:10.18854/kpsr.2021.55.4.003

장승진, 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 doi:10.30992/KPSR.2019.09.18.3.5

장승진, 장한일. (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5), 153-175. doi:10.18854/kpsr.2020.54.5.007

장승진, 한정훈. (2021).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14*(2), 5-35. doi:10.52594/jcp.2021.08.14.2.5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OUGHTOPIA*, *33*(3), 143-180. doi:10.32355/OUGHTOPIA.2018.11.33.3.143

정한울. (2020). *한국인이 보는 사회갈등구조의 변화와 정치 · 이념 양극화의 실상*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 pp. 1-37) [EAI 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하상응, 길정아. (2020). 유권자의 정치 관심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정부 신뢰의 이념 편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2), 31-57. doi:10.18854/kpsr.2020.54.2.002

한정훈. (2019).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 *한국과국제정치(KWP)*, *35*(2), 1-35.

Abramowitz, A. I., & Saunders, K. L. (2008). Is Polarization a Myth?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42–555. JSTOR. doi:10.1017/s0022381608080493

Abramowitz, A. I., & Webster, S. (2016). The rise of negative partisanship and the nationalization of U.S. elections in the 21st century. *Electoral Studies*, *41*, 12–22. doi:10.1016/j.electstud.2015.11.001

Ahler, D. J. (2014). Self-Fulfilling Misperceptions of Public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6*(3), 607–620. doi:10.1017/S0022381614000085

Ahler, D. J., & Sood, G. (2018). The Parties in Our Heads: Misperceptions about Party Composition and Their Consequences. *The Journal of Politics*, *80*(3), 964–981. doi:10.1086/697253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pp. xviii, 537). Addison-Wesley.

Banda, K. K., & Cluverius, J. (2018). Elite polarization, party extremity, and affective polarization. *Electoral Studies*, *56*, 90–101. doi:10.1016/j.electstud.2018.09.009

Bartels, L.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doi:10.1023/A:1021226224601

Blatz, C. W., & Mercier, B. (2018). False Polarization and False Moderation: Political Opponents Overestimate the Extremity of Each Other's

Ideologies but Underestimate Each Other's Certain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5), 521–529. doi:10.1177/1948550617712034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429–444.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 Stokes, D. E. (1960). *The American Voter*. John Wiley & Sons.

Chambers, J. R., Baron, R. S., & Inman, M. L. (2006). Misperceptions in Intergroup Conflict: Disagreeing About What We Disagree About. *Psychological Science*, *17*(1), 38–45. doi:10.1111/j.1467-9280.2005.01662.x

Druckman, J. N., Klar, S., Krupnikov, Y., Levendusky, M., & Ryan, J. B. (2022). (Mis)estimating Affective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84*(2), 1106–1117. doi:10.1086/715603

Enders, A. M., & Armaly, M. T. (201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Actual and Perceived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41*(3), 815–839. doi:10.1007/s11109-018-9476-2

Fernbach, P. M., & Van Boven, L. (2022). False polarization: Cognitive mechanisms and potential solu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3*, 1–6. doi:10.1016/j.copsyc.2021.06.005

Fiorina, M. P., & Abrams, S. J. (2008).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1), 563–588. doi:10.1146/annurev.polisci.11.053106.153836

Goren, P. (2002). Character Weakness, Partisan Bias, and Presidential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627–641. doi:10.2307/3088404

Groenendyk, E. (2018). Competing Motives in a Polarized Electorate: Political Responsiveness, Identity Defensiveness, and the Rise of Partisan Antipathy. *Political Psychology*, *39*(S1), 159–171. doi:10.1111/pops.12481

Haselton, M. G., Nettle, D., & Murray, D. R. (2015). The Evolution of Cognitive Bias. In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pp. 1–20). John Wiley & Sons, Ltd. doi:10.1002/9781119125563.evpsych241

Hetherington, M. J., & Rudolph, T. J. (2015). *Why Washington Won't Work: Polarization, Political Trust, and the Governing Cri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ddy, L. (2001).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22*(1), 127–156.

Huddy, L., Mason, L., & Aarøe, L. (2015). Expressive Partisanship: Campaign Involvement, Political Emotion, and Partisan Ident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9*(1), 1–17. doi:10.1017/S0003055414000604

Huddy, L., & Yair, O. (2021). Reducing Affective Polarization: Warm Group Relations or Policy Compromise? *Political Psychology*, *42*(2), 291–309. doi:10.1111/pops.12699

Iyengar, S., Sood, G., & Lelkes, Y. (2012). Affect, Not Ideology.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doi:10.1093/poq/nfs038

Iyengar, S., & Westwood, S. J. (2015).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90–707. doi:10.1111/ajps.12152

Jerit, J., & Barabas, J. (2012). Partisan Perceptual Bias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 Journal of Politics*, *74*(3), 672–684. doi:10.1017/s0022381612000187

Kahneman, D., Slovic, S. P., Slovic, P., Tversky, A., & Press, C. U.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gzette, J., Druckman, J. N., Klar, S., Krupnikov, Y., Levendusky, M., & Ryan, J. B. (2021). How Affective Polarization Undermines Support for Democratic Norms. *Public Opinion Quarterly*, *85*(2), 663–677. doi:10.1093/poq/nfab029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doi:10.1037/0033-2909.108.3.480

Layman, G. C., & Carsey, T. M.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86–802. JSTOR. doi:10.2307/3088434

Leeper, T. J., & Slothuus, R. (2014). Political Parties, Motivated Reasoning,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Political Psychology*, *35*(S1), 129–156. doi:10.1111/pops.12164

Lelkes, Y., & Westwood, S. J. (2017). The Limits of Partisan Prejudice. *The Journal of Politics*, *79*(2), 485–501. doi:10.1086/688223

Levendusky, M. (2009). *The Partisan Sort: How Liberals Became Democrats and Conservatives Became Republic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oi:10.7208/chicago/9780226473673.001.0001

Levendusky, M., & Malhotra, N. (2016a). (Mis)perceptions of Partisan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80*(S1), 378–391. doi:10.1093/poq/nfv045

Levendusky, M., & Malhotra, N. (2016b). Does Media Coverage of Partisan Polarization Affect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Communication*, *33*(2), 283–301. doi:10.1080/10584609.2015.1038455

Lodge, M., & Taber, C. S. (2013). *The Rationalizing Vo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1139032490

Martherus, J. L., Martinez, A. G., Piff, P. K., & Theodoridis, A. G. (2021). Party Animals? Extreme Partisan Polarization and Dehumanization. *Political Behavior*, *43*(2), 517–540. doi:10.1007/s11109-019-09559-4

Mason, L.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PARTISAN SORTING AND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doi:10.1111/ajps.12089

Pronin, E., Lin, D. Y., & Ross, L. (2002). The Bias Blind Spot: Perceptions of Bias in Self Versus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69–381. doi:10.1177/0146167202286008

Robinson, R. J., Keltner, D., Ward, A., & Ross, L. (1995). Actual versus assumed differences in construal: "Naive realism" in intergroup perception and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404–417. doi:10.1037/0022-3514.68.3.404

Rogowski, J. C., & Sutherland, J. L. (2016). How Ideology Fuels Affective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38*(2), 485–508. doi:10.1007/s11109-015-9323-7

Rothschild, J. E., Howat, A. J., Shafranek, R. M., & Busby, E. C. (2019). Pigeonholing Partisans: Stereotypes of Party Supporters and Partisan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41*(2), 423–443. doi:10.1007/s11109-018-9457-5

Rothschild, Z. K., Keefer, L. A., & Hauri, J. (2021). Defensive Partisanship? Evidence that In-Party Scandals Increase Out-Party Hostility. *Political Psychology*, *42*(1), 3–21. doi:10.1111/pops.12680

Schwalbe, M. C., Cohen, G. L., & Ross, L. D. (2020). The objectivity illusion and voter polarization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5), 21218–21229. doi:10.1073/pnas.1912301117

Sood, G., & Iyengar, S. (2018). All in the Eye of the Beholder: Asymmetry in Ideological Accountability. In *The Feeling, Thinking Citizen*. Routledge.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Brooks/Cole.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pp. x, 239). Basil Blackwell.

Van Boven, L., Judd, C. M., & Sherman, D. K. (2012). Political polarization projection: Social projection of partisan attitude extremity and attitudinal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1), 84–100. doi:10.1037/a0028145

Webster, S. W., & Abramowitz, A. I. (2017).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S. Electorate. *American Politics Research*, *45*(4), 621–647. doi:10.1177/1532673X17703132

Westfall, J., Van Boven, L., Chambers, J. R., & Judd, C. M. (2015). Perceiving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Party Identity Strength and Attitude Extremity Exacerbate the Perceived Partisan Divid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145–158. doi:10.1177/1745691615569849

Yang, J., Rojas, H., Wojcieszak, M., Aalberg, T., Coen, S., Curran, J., Hayashi, K., Iyengar, S., Jones, P. K., Mazzoleni, G., Papathanassopoulos, S., Rhee, J. W., Rowe, D., Soroka, S., & Tiffen, R. (2016). Why Are "Others" So Polarized? Perceived Political Polarization and Media Use in 10 Countri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1*(5), 349–367. doi:10.1111/jcc4.12166

부록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온라인 패널조사 설문 문항

[1차 조사]

정치관심도

QA1. 귀하께서는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정당 호오도

QA6. 귀하께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와 정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서 0은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0은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싫어한다	…	보통	…	매우 좋아한다
	0		5		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이념 및 쟁점 위치 평가

지금부터 서로 반대되는 두 문장을 제시하겠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의 각 정당과 인물, 그리고 귀하 본인은 두 문장 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왼쪽 문장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왼쪽 동그라미에 체크하여 주시고, 오른쪽 문장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오른쪽 동그라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QA7.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보통		보수적이다
	0	…	5	…	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응답자 본인					

QA8. 북한에 우호적이다 ←→ 북한에 적대적이다

	북한에 우호적이다		보통		북한에 적대적이다
	0	…	5	…	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응답자 본인					

QA9. 가난한 사람들 편이다 ←→ 부자들 편이다

	가난한 사람들 편이다		보통		부자들 편이다
	0	…	5	…	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응답자 본인					

QA10.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 페미니즘에 동의한다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보통		페미니즘에 동의한다
	0	…	5	…	1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응답자 본인					

[2차 조사]

정치지식

문8.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는 대로 답해주십시오.
문8-1. 다음 중 현재 국무총리는 누구입니까?
① 김부겸 ② 이낙연 ③ 정세균 ④ 홍남기 ⑤ 황교안

문8-2. 다음 중 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은 누구입니까?
① 임종석 ② 유영민 ③ 노영민 ④ 김기춘 ⑤ 한광옥

문8-3. 다음 중 위헌법률심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대법원 ② 입법부 ③ 행정부 ④ 정당 ⑤ 헌법재판소

문8-4.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어떻게 되나요?
① 305명 ② 300명 ③ 299명 ④ 276명 ⑤ 253명

문8-5.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는 몇 번입니까?
① 2번 ② 3번 ③ 4번 ④ 5번 ⑤ 제한 없음

문8-6. 다음 중 현재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아닌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① 송영길 ② 이준석 ③ 류호정 ④ 여영국 ⑤ 조정훈

지지 정당

문 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정당 중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9-1, 문 9-2 ② 없다 ▶ 문 10

문 9-1.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 ③ 정의당 ④ 국민의당 ⑤ 기타 정당 ( )

문 9-2. 귀하께서는 [문 9-1, 선택정당 이름]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십니까?
① 매우 강하게 지지한다 ▶ 문11 ② 어느 정도 지지한다 ▶ 문11

문 10.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10-1 ② 없다 ▶ 문 11

문 10-1.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 ③ 정의당 ④ 국민의당 ⑤ 기타 정당 ( )

당파 정체성

문 19. 다음의 진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진술에 [정당]을 문 9-1이나 문 10-1에서 선택한 정당의 이름으로 제시)

문 19-1.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9-2.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9-3. 나는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9-4.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9-5.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9-6. 다른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9-7. 나는 [정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정당”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곤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적 거리

문 21. 귀하께서는 귀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과 아래와 같은 관계에 놓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보통이다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1	2	3	4	5
1.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					
2.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3.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4.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특성 평가

문 22. 귀하께서는 귀하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1. 정치적으로 타협 가능한 사람들이다				
2.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3.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4.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인구학적 문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년생

SQ3. 다음 중 귀하의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기준)는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DQ1. 귀하 댁의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월급, 상여금,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500만 원 미만
6. 500만 원~600만 원 미만
7. 600만 원~700만 원 미만
8. 700만 원~800만 원 미만
9. 800만 원~900만 원 미만
10. 900만 원~1,000만 원 미만
11. 1,000만 원 이상
12. 모름

D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또는 그 이하 2. 고졸 3. 대학 재학 4. 대졸 5.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Abstract

Partisan Identity and Partisan Polarization: The Microfoundations of Affective Polarization

Woohyeon K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erceptions of partisan polarization fuel interparty animus in South Korea. Although previous work suggests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arti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affective polarization, how voters perceive these differences and form attitudes based on them is largely unknown. This study focu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partisan polarization and their consequence for attitudes towards parties. This study finds that people misperceive greater differences in political views between parties than they really are. This distortion was largely driven by overestimating the ideological extremity of the opposing party. Furthermore, the perceived polarization amplifies the affectively

polarized attitudes by influencing partisans to evaluate the supporting party more positively and the opposing party more negatively. As to the bias towards out-partisans, only the characteristic evaluations showed a limited effect of the perceived polarization. Lastly, the effect of the perceived party extremity on the attitude toward the party differed depending on the partisanship.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partisan polarization by showing the gap between the perceived polarization and the actual polarization of Korean voters in detail,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so far, and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 perception of polarization is exaggerated asymmetrically by partisan bias. Also, it sheds light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subjective perception of polarization by revealing that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polarization i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political parties and partisans.

Keywords : Affective Polarization, Partisan Polarization, Perceptions of Polarization, Partisan Bias, Partisan Identity
Student Number : 2020-21175